

# “새만금, 이차전지 클러스터 형성 중”

#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침수 안전대책 국비 투입을”

김관영 도지사, 신영대·정운천 의원과 산업부 장관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공동 건의

이차전지 산업 성능·안전성 향상 기술혁신 위한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 국비 반영 요청

민주 김윤덕 의원,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서 촉구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포함 긴급 공동회의도 제안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신영대·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25일 국회에서 이차전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초격차를 실현하고자 산업부에서 공모 진행중에 있으며, 전북도는 새만금을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이자 R&D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전북도, 전북도의회, 새만금청, 도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모든 행정·재정적 역량을 쏟고 있다.

새만금 지역은 무엇보다 단일 규모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전북도의 기업 친화 정책 원전 7기 용량의 재생에너지로 RE100 실현 등 타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이점을 지닌 지역으로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에 최근 3년간 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와 약 80만명의 이차전지 클러스터가 이미 형성중이며, 특히 R&D 혁신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대한민국 K-배터리의 선구자이자 2022년 최고과학기술인 수상자이며 전북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양대학교 선양국 교수와 함께 R&D 초격차 기



25일 국회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신영대·정운천 국회의원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공동 건의하고 있다.

술 실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전북도는 초격차 R&D 실현을 위해 이차전지 산업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혁신을 위해 이차전지 분야의 한국형 MBE인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2024년 국비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은 전북의 산업지도도를 바꾸고 새만금이 혁신산업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이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전북 발전의 절실한 기회”라며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실현할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 18일 발표평가 진행한 바 있으며, 김관영 지사는 특화단지 공모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PT 발표 또한 직접 나서서 심사위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월 말 경 발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특위, 업무보고 청취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는 25일 2차 회의를 열어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지정촉구 건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 앞으로 주요 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도 집행부로부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뒤 특위와 집행부 중앙장차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전북이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구 위원장은 “전북은 특화단지 지정 신청을 마치고 현장조사, 발표심사 등 공모 절차에 대응하며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전북 새만금이 대한민국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투자도연구회 지방자치 발전 정책 세미나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연구회(대표의원 김희수)는 25일 도의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전북연구원 이상재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현황을 소개한 뒤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담은 전략·정책의 생명경제 비전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뒤이어 전주대학교 임성진 교수는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전북특별자치도 성장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생명경제에 대한 개념 조화화와 함께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尹대통령 공약, ‘빌 공(空)’ 자 공약 대선 안돼”

민주 윤준병 의원,尹 간호보 등 공약 파기 논란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국정과제 미포함” 비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5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空)자 공약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한해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고 말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계획

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 알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킬 의지도 애초에 없으면서 전북에 희망공로

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한 도전이자 파괴행위”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즉시 호남출대를 멈추고 지난 대선기간 전북도민에게 약속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4일인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올해 수립되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꼭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질의하며 대통령비서실에도 관련 절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정재훈 기자

## 도의회 예결특위, 전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 18억·교육청 14억 삭감… 잼버리 참가비 지원은 원안 가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석, 전주2)는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총 4차 회의를 거쳐, 전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2322억원(수정예산 30억 증액 포함)과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9018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 전북도의 경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10조2322억원 중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총 9건, 1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전북도교육청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4조9018억원 중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등 총 12건 145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은 ‘세계잼버리 참가비 지원’은 전라북도도 교육청이 지원 범위를 확대 반영함에 따라 다른 대회 및 참가 자격이 되지 않은 도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도내 학생과 교사, 스카우트관계자 등 도민들

의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원안 가결함에 따라 도내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지연유인책(데미샘 휴인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은 추경예산안 만큼, 사안의 시급성 및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위의 예산만을 반영하고 일부 삭감했다.

세계화상대회 기업전시회 참가 지원 등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경우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184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액편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자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아령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하여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각 배수로를, 전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아령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안정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북도지사가 참여하는 ‘긴급 공동회의’를 제안한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정하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잼버리 아령장 등의 부지는 지난 5월 3일부터 6일까지 131mm의 폭우로 인해 침수된 바 있고, 특히 올해는 7년만에 발생하는 ‘슈퍼엘니노’ 현상으로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인 8월은 평수보다 2배 가까운 폭우를 동반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랫동안 아령활동을 경험한 실무진들에 따르면 민간의 사체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뿐만 아니라 아령침대와 패레트도 준비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지만 각 부처와 전라북도, 조직위는 적절한 예산과 집행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3년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draw your dream(나의 꿈을 그려라)’ 뜻을 담아 전북 새만금에서 약 170여개국 4만3000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참여로 열릴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 도의회, 학술정보협의회 ‘국회도서관장상’ 수상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관에서 열린 제21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공로상 시상식에서 ‘국회도서관장상’을 수상했다.

전북도의회는 한국학술정보협의회 회원 기관 중 국회전자도서관 학술정보 상호협력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정보 공동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학술정보협의회는 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 2002년 발족해 국내외 약 630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정보 협의체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는 2013년 국회도서관과 상호정보교류 협력 협정을 맺은 이후 도의회 도서관자료를 비롯한 의원연구실·상임위 전문위원실 등에 국회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 의정활동에 필요한 학습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신 입법정보 상호협력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정보 공동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방편이 확대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학술정보협의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의 전문 자료를 활용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환경보 군산시의원, 올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환경보 군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나운1·2동)이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선도하는 뛰어난 지방정치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혁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법안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올바른 자치분권 활동 발굴과 지방정치 인식 제고를 목표로 매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정 및 시상하는 전국 단위 공모대회이다.

환경보 의원은 제4~7대 군산시의회의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발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전국 최초인 군산시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등 조례를 제·개정해 미래산업의 지역 선점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의 제갈순래그 환경오염문제 제기, 천연연방사생폐기물 라돈침대 소각계획 즉각 중단 촉구 등 지역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로 미래환경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환경보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자산을 지키고 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과 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드론·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적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훈 기자